연중 제32주일 강론(2019년 11월 1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삶의 고통을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라고만 울면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잖아요? 이 십자가를 제발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긴 십자가를 잘라 주셨답니다. 그 자매는 꿈속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큰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그 낭떠러지에 턱 걸쳐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편 하느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그 절벽에 걸쳐 놓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털썩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만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 나라에 가야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매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고 또 구원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는 인생의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이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야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어라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합니까! 그 과정은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러닝머신은 처음에 범죄자를 고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그야말로 몸에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에 고문을 가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드웨인 존슨입니다. 프로 레슬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영화배우로 활동하는데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나이 50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엄청난 근육과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화 촬영을 위해 이동할 때는 엄청난 크기의 차량들이 함께 이동하는데 그 안에는 드웨인 존슨의 개인 헬스 도구들이 있답니다. 늘 쉬지 않고 운동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움직이는 개인 헬스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몸을 늘 트레이닝을 시켜야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 요법으로 몸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미사 참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주기도 늘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양심성찰하고, 그런 영적인 훈련과 단련을 거쳐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해 가는 거죠. 그냥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한 단련이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한 신앙 생활을 위한 훈련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바로 부활이고 행복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몸무게를 조금씩 줄이고 운동을 조금씩 늘리며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TV나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고 책 읽는 시간을 늘려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는 하느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나 영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일곱 남자의 부인이었던 한 여인이 죽으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부활의 삶이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로 죽으면 하늘 나라에서도 어린이로 사는 것일까?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모습으로 하늘 나라에서 살게 될까? 혹시 하늘 나라에서는 서로 알아 볼 수 있을까? 등등… 우리는 하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마치 이대로 인생 끝나도 좋겠다는 그 행복한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 하늘 나라와 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죽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하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면 그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늘 나라에 절대 못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동전 한 닢이라고 다 갚지 못하면, 절대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용서할 때까지 절대 하늘 나라에 못 갈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삶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